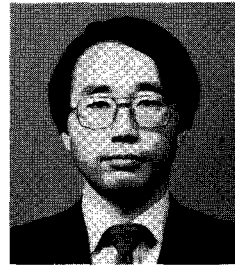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비 절감 방안



안 형 진
(주)퓨리나코리아 양계 PM

1. 급변하는 양계산업

1) 높은 곡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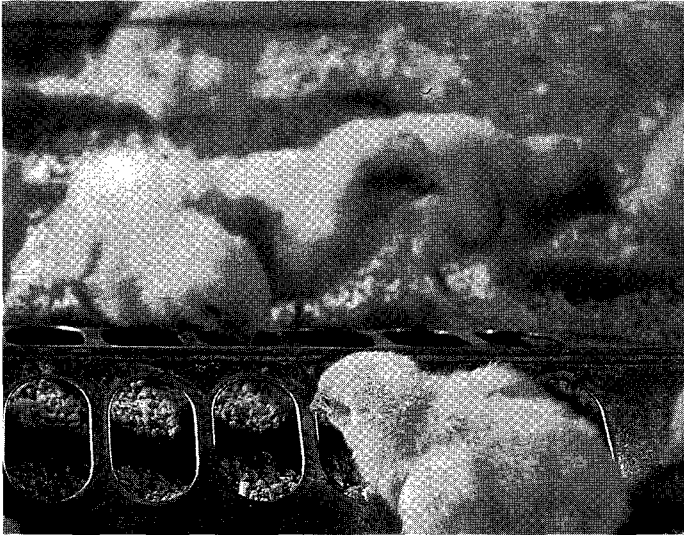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급격히 늘고 있는 곡물수요에 못따라가는 공급, 곡물 생산국의 흉작, 많은 곡물을 수출하던 중국이 수입국으로 바뀌는 등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시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이 다소 늘어나겠지만 비교적 높은 가격에서 안정될 뿐이지 저 곡물시세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2) 눈부신 성장

국내 양계업의 규모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신축했다하면 계사 한 동에 몇 만수씩 사용되는 무창계사이며 재래식 계사도 동당 만수 이상 되는 등 실로 과거 어느 때 보다는 사육 규모 면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농수산부 가축통계에 의하면 반수이상의 닭이 30,000수 이상의 규모이므로 이제 몇 천수가 아니라 몇 만수 단위로 발전했다.

3) 사양관리 후퇴

규모는 대단히 성장했지만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는 인력난, 일을 편하게 하려는 사회풍토 등과 어울어져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 솔직



우리가 헤치고 나아갈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치열한 경쟁에
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되는 몇가지를 같이 되새기고
자 한다.

2. 사료비 절감 방안

1)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은 양계업이 존재하는
한 같이 상존하는 문제이다. 특히 산
란계의 생산성은 몇일내에 평가되지

않고 몇달 어쩌면 계군이 도태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더욱 치밀한 분석 및 관리
가 필요하다. 물론 사료회사에서도 원료를 정
밀하게 닭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최신기술을 과
학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농장에서도 그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노력해
야 한다. 지금보다도 좀더 나은 방법, 보다 정
밀한 방법을 찾아 농장현실에 맞게 하나 둘 적
용함으로써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다.

2)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규모확대에 투자한 노력에 비해 관리에 쏟는
노력은 너무 인색하다. 체중관리, 환기, 점등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
히 하고 있다. 물론 인력난으로 힘들어 그렇겠
지만 기본적인 것은 언제나 끝까지 철저히 지
켜나가야 한다.

사료섭취량도 매우 중요하다. 비록 마리 당
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만 몇 만수의 농장
전체로 보면 매우 큰 수익 차이가 발생되게 된

히 반성해보면 규모가 적을 때의 정성과 비교
하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줄은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나 그냥 넘어 가기에는 너무나
이쉬움이 많다. 자동화, 기계화되다 보니 오히
려 경영에 대한 감이 거리가 생긴 것이다.

4) 국제 경쟁시대

아직 산란계 산업은 수입개방의 영향이 우려
되지는 않지만 영원히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화 시대에는 타의든 자의든 간에 국제경쟁
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된다.
우선의 수익이 괜찮다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경쟁국가의 계란 수입가능성에 대해 항상 감시
해야 한다.

즉, 종전보다는 생산비 부담측면에서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역으
로 잘못되었을 때의 피해도 그만큼 대형화 되
므로 좀더 정밀한 긴장된 양계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없게 된다.

다. 육체적으론 종전보다는 편해졌겠지만 신경써야 되는 부분까지를 합치면 훨씬 더 사양관리가 어려워졌다. 대강 철저히는 이젠 통하지 않는다.

3)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

이제는 방역관리에 조그마한 헛점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성역화됨에 따라 그 피해의 확산은 과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병균의 이동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이다. 이젠 눈에 안보이는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철저한 계군의 정기적 건강진단, 외부인의 출입통제, 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료회사에서도 원료선택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로 위생적으로 사료를 생산, 유통해야 한다. 발전된 농장규모에 맞게 선진국처럼 가열처리된 펠릿사료도 보편화되어야 한다.

4) 최종생산물의 품질을 고려한 사양관리

상인에게 높은가격으로 농장에서 판매하는 것으로는 이젠 만족되지 않는다. 상인과 생산자도 힘을 합해 최종생산물의 소비촉진에 힘써야 한다. 최종생산물의 안전성, 맛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문제는 소비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 안되는 완전식품인 계란의 영양을 생산자, 유통업자가 협력해서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지속적인 소비촉진이 이루어진다.



파란의 개념도 바뀌었다. 농장에서 발생된 파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송되고 처리되어 포장될 때까지로 확대되었다. 농장규모 확대에 따라 계란의 이동거리 증가, 위생처리, 포장에 따른 외부충격 증가에 의해 파란도 과거보다 훨씬 늘었다. 계란을 파는 사람도 손실이 적어야 발전되며 높은 가격을 생산자에게 줄 수 있게 된다.

5) 통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 양계산업은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를 능가한다.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충실해야 되며 생산성도 단편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업경영에 수익이 되느냐를 따져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다. 양 14